

## : 1964-2000

김달관(울산대)\*

|      |   |
|------|---|
| I.   | 가 |
| II.  |   |
| III. |   |
| IV.  |   |
| V.   |   |

### I. 들어가는 말

2000년 7월2일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후보(PAN: 국민행동당)가 여당소속 대통령후보를 물리치고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1929년 멕시코 혁명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제도혁명당(PRI)이 71년(1929-2000) 동안의 대통령직을 야당에게 처음으로 인도해야 했다. PRI의 정치체계모니의 하락이 1997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집계시스템붕괴”(la caída del sistema de cómputo) 이후 살리나스 대통령은 PAN의 선거승리는 인정하면서도 민주혁명당(PRD)의 선거승리는 인정치 않는 ‘선택적 민주주의’를 구사했다. 1994년 선거에서부터 선거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수준에서는 PRI-PAN 또는 PRI-PRD가 서로 경쟁하는 양당경쟁

---

\* Dal-Kwan Kim(University of Ulsan), “The Reform of Electoral System and Democracy in Mexico: 1964-2000”.

구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PRI-PAN-PRD가 서로 경쟁하는 3당 경쟁구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97년 하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분할정부가 탄생했다.<sup>1)</sup>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후보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정치는 민의에 의한 정치이며, 시민의 대다수가 선거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유권자가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으로 정치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데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정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개념의 핵심은 대표성이다. 대의민주주의란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시민의 뜻을 대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정당으로 표현된다. 정당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집약된 이해의 묶음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당선은 정당이 어떠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치권력에 대한 경쟁은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선거는 한 사회의 선호(preference)를 총합적으로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이다(안순철, 2000: 16).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집된 대의성(代議性)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시민의 사회적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는 운용된다.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표현되는 공간으로서 선거는, 투표행위로 나타나는 사회의 선호를 어떻게 의회에서 의식으로 전환하는가는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에 관심이 대두된다.<sup>2)</sup>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많은 국가

1) 분할정부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서 장악되는 상황으로,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바로 그것이다. 분할정부하에서 행정부 집권당인 여당은 의회의 다수당인 야당의 견제를 받게되어 이질적 가치들이 대립하게된다. 따라서 분할정부의 의미는 동질성에 바탕을 둔 통합보다는 이질성에 기초한 견제의 원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조중빈, 1999: 298)

2) 선거제도가 일반적 개념이라면 선거체제는 특별히 투표가 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선거체제란 시민의 투표를 대의기구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체제는 선거방식(electoral formula), 1선거구당 의석수(district magnitude), 투표구조(ballot structure), 진입비용(thresholds), 선거구획정의 불균형성(malapportionment), 진입비용(effective thresholds),

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실행되었고, 멕시코에서도 1977년 이래로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이 실천되고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선거경쟁의 주체이고 선거제도는 선거경쟁의 규칙이다. 게임의 규칙은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평한 선거제도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의 모든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어느 경쟁상대자에게 이롭고 다른 경쟁상대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정적인 경우에도 선거구의 경계 변경만으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법 협상은 언제나 격렬하고 합의가 어렵다. 협상의 결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광수, 2002: 83-84). 2003년 멕시코에서 비센테 폭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하원 선거에서 야당인 PRI가 222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46%를 구성하고, 여당인 PAN은 151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30%를, 다른 야당인 PRD는 95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19%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3년후에 있을 2006년 대통령, 연방상원·하원선거는 멕시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멕시코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어려운 고비마다 선거제도 개혁을 실천했는데, 1977·1987·1990·1993·1996년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의 멕시코 정치지형과 맞아야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이 PRD를 탄생케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PAN의 분발은 멕시코 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1994년 선거에서 지방수준에서는 양당경쟁구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3당경쟁구도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들은 멕시코 정당체제에 변화를 초래했다. 마침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

---

의회의 규모(assembly size), 대통령 선거의 효과(presidentialism), 정당간 선거연합(apparentment)의 허용여부를 언급한다(안순철, 2000:58; A. Lijphart, 1995).

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는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요소 중에서 정당의 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정당체제가 양당제로 향하는지 다당제로 향하는지 기준은 선거결과에서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1964-2000년까지의 멕시코 하원 선거 결과이고, 분석단위는 집합적인 선거구이다. 분석방법은 주로 집합적인 하원선거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듀베르제의 가설인 다수대표제-양당제, 비례대표제-다당제 경향성이 멕시코 경우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다.

## II. 정당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일반적인 정당체제 분류법은 주요 정당의 수에 따라, ① 1당체제, ② 2개의 주요정당이 상호경쟁하며 존재하는 양당체제, ③ 2개 정당 이상이 상호 각축하고 있는 다당체제로 구분한다.<sup>3)</sup> 정당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 정당의 의미는 결국 시민

3)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정당체제의 경쟁성 여부를 기준으로 7개의 정당체제 유형을 제시했는데 ①1당체제, ②패권정당체제, ③1당우위체제, ④양당체제, ⑤제한적 다당체제, ⑥극단적 다당체제, ⑦원자화체제로 구분하고 있다(Giovanni Sartori, 1976: 121-125). 블론델(J. Blondel)은 6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①무당적 체제, ②1당체제, ③양당체제, ④2.5당체제, ⑤1당우위 다당체제, ⑥대등적 다당체제이다(Jean Blondel, 1968: 164-166). 아몬드(G. Almond)는 ①권위주의적 정당체제, ②지배 비권위주의적 체제, ③경쟁적 양당체제, ④경쟁적 다당체제로 구분한다(Gabriel Almond, 1974: 40-41). 그밖에 라팔롬바라와 웨이너(J. Lapalombara & M. Weiner)유형, 맥도널드(Ronald H. McDonald)유형 등이 있다(Joseph Lapalombara & Myron Weiner, 1972: 33-41; Ronald H. McDonald, 1971: 1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체제의 분류는 공통성보다 상이성이 더 크다. 이런 점에서 정당체제에 대한 정의와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준을 정당의 수와 정당 간의 경쟁관계로 한정하고자 한다.

의 정치적 지지를 근거로 존립하며, 그러한 시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당 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이지, 정치엘리트들의 이합집산에 의해 정당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선거체제란 첫째,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같은 선거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대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다수대표제는 양대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소정당의 대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다당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Duverger, 1951; Rae, 1967; Grofman & Lijphart, 1986). 둘째, 1선거구당 의석수도 선거체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차원이다.<sup>4)</sup> 셋째, 선거구의 유권자수의 차이이다.<sup>5)</sup> 이밖에도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구성요소도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되는데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흔히 First Past The Post(FPTP)라고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수의 득표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제1순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일반적으로 불비례적(disproportionality) 메카니즘이다(안순철, 2000: 90). 단순다수대표제의 장점은 첫째, 단순하고 쉽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간의 친밀

4) 선거방식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라 칭하고, 1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경우 중선거구제라 칭하며, 1선거구당 5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 대선선거구제라 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일반적이나 엄격한 구분은 아니다.

5) '1인1표1차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 선거방식은 ①단순다수대표제(plurality formula), ②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formula), ③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④준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system) 및 혼합형(mixed system), ⑤추가의원제(additional-member system) 등이 있다(M. Harrop & W. Miller, 1987: 2-4; R. Taagepera & M. Shugart, 1989). 이 논문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만 다루려고 한다.

도가 높게 유지된다. 셋째,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성 역시 단순다수대표제의 장점이다. 높은 비례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정부구성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느냐의 쟁점이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단점으로서 첫째, 소수대표현상이다. 즉 다수대표제는 의원들의 현실적 환경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서비스 위주의 활동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불비례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구가 조밀한 도시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1표가 동일한 가치를 같도록 하는 선거구획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셋째, 정치적 소수그룹의 대표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안순철, 2000: 90-126). 비례대표제는 의석의 할당방법에 따라 명부식(list system)과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으로 구분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대선거구의 입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정당의 명부에 기표하게 되며 의석은 그 정당의 명부에 던져진 투표수에 비례하여 정당에 할당되는 방식이다(Vernon Bogdanor & David Butler, 1983: 16-17).<sup>7)</sup> 반면에, 단기이양식 투표제는 유럽식 비례대표제가 정당에 입각한 명부제라면, 단기이양식은 후보자 개인에 투표하는 것이다.<sup>8)</sup>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첫째, 높은 비례성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의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군소정당의 대표성보장, 여성과 소수그룹의 대표성보장,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타협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촉진한다. 각 정당은 이념적으로 온건한 중도적 유권자들에 가까워지기 위해 극단적 정치행태를 자제하기 때문에 정치안정에 기여한다. 셋째, 정당의 리더쉽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밀실야합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7)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①전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전국적인 의석할당방법(이스라엘, 네덜란드), ②지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전국적인 의석할당방법(덴마크, 스웨덴, 이태리, 서독), ③지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지역적인 의석할당방법(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8) 개인은 단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각 유권자는 선호표를 만들어 최초의 선호후보자에게 자신의 투표가 잉여표가 될 경우, 두 번째 선호후보자에게로 표가 이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수대표제와는 다르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표가 없이 이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구성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비례성이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군소정당의 극단적인 정치행태는 정치적 불안 야기한다. 셋째, 정당 리더십의 권한이 커져 명부작성의 권리를 갖는 리더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안순철, 2000: 158-188).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와 정치적 안정의 관계는 그 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듀베르제(Duverger)가 1954년 그의 책에서 언급했다(Duverger, 1954). 이후 그의 가설에 대한 경험적 증명과 반대, 수정을 둘러싼 제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는 선거체제의 주요인 중 선거방식이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세 가지 경향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단순다수대표제 1회투표제(plurality single ballot methods)는 두 개의 대정당이 독립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양당체제로 가는 경향이 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절대다수대표제 2차투표제(two ballot majority system)는 다당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다당체제는 서로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Duverger, 1954: 205). 이중 첫 번째 가설은 일반적으로 듀베르제의 제1법칙이라 칭하며 나머지 두 개는 가설로 논한다.

또한, 듀베르제는 그의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관한 3가지 경향성을 언급하면서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를 지적했다. 기계적 효과는 제도적 과정으로서 큰 정당들이 득표율을 초과해서 의석을 점유하는 과다대표(over-representation) 현상과 군소정당들이 득표율에 훨씬 미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 현상으로 나타나 군소정당을 위축시키고 양당제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심리적 효과는 1석다수대표제 하에서 선거는 대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화하는 것을 염려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자신의 투표가 사표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대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심리가 양당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에서는 2단계 심리적 효과가 양극화에 역행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이 이루어지고, 의회구성에서 유권자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소신에 따라 지지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얻게 된다. 따라서 1석 다수대표제에서와 같은 당선가능성에 따른 득표의 양극화와 의석의 과점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득표의 분산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공평한 의석배분이 다당제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Bogdanor & Butler, 1983: 49). 듀베르제 가설의 기계적 효과가 경험적으로 실증이 되었고, 심리적 효과도 기계적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험적으로 실증이 되었다(김광수, 2002: 231).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 측면에서 나타난다. 선거제도의 결과를 토대로 비례성 또는 대표의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 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선거의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다. 선거의 불비례성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말한다. 다당제 경향이나 다른 정당체제의 특징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불비례성은 가장 직접적으로 현상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지표이다(Lijphart, 1995: 104-109).<sup>9)</sup> 또한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는 정당체제의 분절화(fractionalization)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로 나타낸다(Rae, 1967: 55-56).<sup>10)</sup> 한편, 정

9) 본 연구에서는 John Loosemore와 Victor J. Hanby의 지수(D)와 Michael Gallagher의 지수(LSq)를 사용하려 한다. Loosemore-Hanby 지수(D)는 전체적인 일탈을 측정한다. 백분율을 단위로 할 경우에 0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의 값을 갖는다.

Loosemore-Hanby의 지수  $D = \frac{1}{2} \sum |V_i - S_i|$  (Vi=득표율, Si=의석율)

Michael Gallagher의 지수  $LSq = \sqrt{\frac{1}{2} \sum (V_i - S_i)^2}$  (Vi=득표율, Si=의석율)

10) 만약 Vi가 i번째 정당의 득표율이라면, 정당들의 득표율에 근거한 정당체계 파편화 정도(Fv)는 다음과 같다.

$$Fv = 1 - \sum V_i^2 \quad (Vi = i\text{번째 정당의 득표율})$$

Fv는 전체유권자들이 무작위로 상호 작용한다면, 유권자들이 정당의 선택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을 빈도이다. 순수한 일당체계의 파편화 정도는 0이며, 극단적인 파편화 상태에서 각 유권자가 그 자신의 정당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그때 파편화 정도는 1이라는 최대치를 갖는다. 또한 의석율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당의 수와 관련하여 렉소(Markku Laakso)와 타게파라(Rein Taagepera)는 과편화 지수를 사용하여 ‘정당의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로 변경시켰는데, 이것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될 수 있다(Lijphart, 1995: 114-119).<sup>11)</sup>

### III. 멕시코의 선거제도 개혁

멕시코에서 첫 번째 선거규정은 1857년에 공포되었고, 이후 1911-2000년 동안 대략 15번의 선거관련 법령 제·개정이 있었다(Villanueva, 1994: 142). 1911년 전까지 선거는 남성·보통·간접·비밀의 특징을 갖는다. 1911년부터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 직접선거를 도입했다. 1954년에 여성선거권이 도입되었고, 1971년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Villanueva, 1994: 143-144). 1964-2000년 동안 일반적인 멕시코 하원선거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      |         |      | 1 |     |       | ( )<br>+     |
|------|---------|------|---|-----|-------|--------------|
| 1964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8 | 다수대표제 | 210 (178+32) |
| 1967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7 | 다수대표제 | 211 (177+34) |
| 1970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8 | 다수대표제 | 213 (178+35) |
| 1973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94 | 다수대표제 | 231 (194+36) |

11) 정당의 득표율에 의거한 정당의 수는  $Nv=1/\sum Vi^2$  (Vi=정당의 득표율)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 의거한 정당의 수는  $Ns=1/\sum Si^2$  (Si=정당의 의석 점유율)  
 $Fs=1-\sum Si^2$  (Si=i번째 정당의 의석 점유율)

|      |         |      |   |     |                          |               |
|------|---------|------|---|-----|--------------------------|---------------|
| 1976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237 | 다수대표제                    | 277 (237+41)  |
| 1979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31 (300+136) |
| 1982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00 (300+100) |
| 1985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00 (300+100) |
| 1988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1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4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7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2000 | 직선·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64-1976년 동안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이라는 제도를 사용해 왔는데, 지금의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 하원규모 항목에서 1964-1976년 동안에는 ‘정당의원’수를 포함하는 숫자이다.

\*\*\* 자료는 Gómez Tagle(1997: 67-72)를 재구성했다.

멕시코에서 최근 30년 동안의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1977·1987·1990·1993·1996년에 시행되었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자유화를 통해 정당성을 회복하면서 통치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이성형, 1998: 148).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헌법 개정과 새로운 “정치조직과 선거절차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Organizaciones Políticas y Procesos Electorales)이 제정되었다.<sup>12)</sup>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도 선거과정에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했다(Orozco, 1993: 36-37). 둘째, 선거과정에 국가권력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될 때,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대법원

12) 1977년 12월30일 연방관보에 공표되었다.

에 부여했다. 셋째, 기존의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 방식을 비례대표제로 대체했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대표제(Diputados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DRP)를 도입하면서 의석도 예전의 41석에서 136석으로 확대되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4년에는 32명, 1967년에는 34명, 1970년에는 35명, 1973년에는 36명이 각각 정당의원 제도에 의해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던 1977년부터 136명에서 현재 200명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하원구성의 변화로서 총400석으로 그 인원을 고정하고, 그 중에서 300석은 최다득표제(Diputados de mayoría relativa: DMR)에 의해 하원의원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100석은 비례대표제(DRP)에 따라 각당의 비례대표명부에 의거하여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직접적인 요인으로 1976년 폐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촉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여권에서는 정치안정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로빠스 뽀르띠요 대통령은 정치개혁(reforma del Estado)뿐만 아니라 도덕성 개혁(reforma moral)도 주장했다.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1968년 학생운동도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8년 위기의 원인을 보면, 첫째 1954-1968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인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둘째 1960년대 후반에 자본축적 모델의 구조적 고갈현상이 심화되었다. 셋째 사적부문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국가의 자율성이 감소했으며, 반대로 사적부문의 중요성은 강화되었다. 넷째 이에 따라 중산층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68년 위기로 개혁을 통한 정치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8년 위기는 멕시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포라티즘 지배공간의 재배치와 재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968년 학생운동 이후 1970년에 에체베리아 정부는 “동반발전”(desarrollo compartido)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에체베리아 정부의 특징은 첫째, 교육받은 중산층 자녀흡수를 위한 빠른 관료제의 성장과 크게 확대

된 공공지출이다. 둘째, 가파른 임금상승을 허용하는 공공임금정책이다. 셋째, 인구성장, 농수산업의 애로, 실업·가난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상승된 욕구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임금정책, 확대공공지출정책, 적자재정운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1976년 경제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당은 정부에 대한 정치불만의 표시로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1976년 대통령 선거는 야당소속 대통령후보가 없이 여당인 PRI 후보 단독출마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1976년 경제위기, 야당 대통령후보 없는 대통령 선거 등은 통치엘리트에게 위기의 시그널을 보냈다. 다른 한편, 야당 대통령후보 없는 선거전에서 로빠스 뿌르띠요는 정치개혁과 도덕성개혁을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로빠스 뿌르띠요는 통치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로써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이해될 수 있다.

1987년 선거제도 개혁은 야당의 압력을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부의 불안심리가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이성형, 1998: 155). 1987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하원구성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원 선출은 100석에서 200석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하원규모는 총 400석에서 500석으로 확대되었다(Orozco, 1993: 76-80). 둘째, PRI를 강화시키기 위해 ‘통치안정조항’(candado de gobernabilidad)을 도입했다. 상대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51%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표를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절대다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의석수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선거소송재판(Tribunal de lo Contencioso Electoral)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틀 내에서 정당에게 투명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선거재판을 위한 연방선거법(Código Federal Electoral)을 제정했다(Orozco, 1993: 85-86). 넷째, 1977년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참여를 인정했는데, 1987년에는 선거에서 정당재정지원 등 정당의 권리를 확대했다. 1987년 선거제도 개혁 배경에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제적인 측면에

서 첫째, 멕시코 석유가격하락은 수출에 의한 수입을 급격히 감소시켰다(Cárdenas, 1996: 141-142). 둘째, 멕시코 외채가 1970년 60억 달러에서 1982년 800억 달러로 증가해서 매년 29%씩 증가했다(멕시코 재무부, 1988: 24). 이에 따라 외채이자 지급은 멕시코 국제수지를 악화시켰다(Ogaz, 1996: 41-41; 멕시코재무부, 1988: 25). 이러한 경제상황은 폐소화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했고, 마침내 1982년 9월1일 로페스 보르띠요(López Portillo: 1976-1982)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을 국유화한다(López, 1982). 사회적으로는 1985년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Ortiz, 1997: 53).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구작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준비부족과 부패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Cansino, 1998: 180-181). 1985년 지진사태에서 멕시코 시민사회는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복구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alazar, 1996: 55).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민일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조직을 해야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Sergio, 1996: 14-15). 1985년 지진사태는 1987년 멕시코자치주(D.F) 대표회의(Asamblea de Representantes del Distrito Federal) 창설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6년 당시 여당인 PRI 내에 비판적인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후보 선정과정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민주파”(Corriente Democrática: CD)를 구성했다(Meyer et al., 1989: 311). PRI를 탈당한 민주파 의원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민족민주연합”(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을 결성했고, 이후에 “민주혁명당”(PRD)으로 공식출범했다(Rodríguez, 1991: 391-392; Zárate, 1995: 368-369). 여당인 PRI에서 민주파의 탈당은 1929년에 구축된 정치제도의 깊어져 가던 균열을 더욱 드러나게 했다(Garrido, 1993: 19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에 이어 1982년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1985년 지진사태로 인한 시민사회의 각성, 1986년 정치엘리트 간의 갈등은 1987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한 실천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

거가 예상되는 1988년을 대비하고 일정한 정치안정을 통하여 1988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선거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로운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에 관한 연방법”(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을 공포했다. 둘째, 선거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연방선거위원회”(Instituto Federal Electoral: IFE)를 창설했다.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자율적, 상설적, 법인적 성격을 띠며 자체예산을 갖는 기관이다. 셋째, 선거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전문서비스’(Servicio Profesional Electoral)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1987년 선거제도 개혁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1982-1988)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증권폭락이 발생했다(Cárdenas, 1996: 153). 정치측면에서 1985년 지진사태는 1987년 멕시코자치주(D.F)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멕시코자치주(D.F) 정부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Pérez et al., 1995: 311; Salazar, 1996: 202-293). 다른 한편,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시스템붕괴’로 인한 정권의 정당성 하락은 1990년 선거제도 개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작용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연방선거위원회(IFE)의 구성을 보다 민주화했다. 둘째,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통치안정조항’을 완화해서 야당은 최소 37%를 보장받게 되었다. 셋째,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재판(Tribunal Federal Electoral)의 권한을 강화했다. 넷째, 연방선거 예비결과의 즉시적 공표를 위한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1988년 선거에서 선거개표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선거결과에 대한 의혹 때문에, 예비선거결과의 즉각적인 공표는 제도적 안정에도 기여했고 선거과정의 정당성도 강화시켰다. 1993년

개혁은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변화로 인해 정치참여 형태의 변화를 초래했다. 도시 중산층이 코포라티즘 협약에서 소외되었고 시민운동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Villamil, 1995: 193-194). 이러한 상황에서 살리나스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주화, PRI 당내 민주화, 민주적인 선거법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Ramírez, 1995: 234-237).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은 1990년 때 보다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정치압력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살리나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로 인해 포괄적인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요구되던 시기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살리나스의 개혁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개인적인("estilo personal de gobernar") 측면에서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세디요(Ernesto Zedillo)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복잡하고 누적된 정치상황을 풀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했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여러 달 동안 야당인 PAN과 PRD, 시민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선거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González, 1996: 187). 이러한 합의에서 세디요 정부와 PRI가 추진해야 할 폭넓은 아젠다와 구체적인 사항 10개가 제시되었다(Villamil, 1998: 90-91). 이러한 과정에서 야당도 선거에 관한 핵심사안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통해 PRI로 하여금 합의된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야당의 새로운 분열에 의하지 않고서는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Cansino, 1998: 36-37). 1996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연방선거위원회에서 행정부 대표위원직을 폐지했다. 이것은 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총괄위원회(Conse General)를 주재하던 내무부 장관이 더 이상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정당의 조건부 등록제를 폐지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 정당등록과 조건부 정당등록이라는 이원체제에서 일원체제로 단일화 되었다. 다른 한편, 정당이 정당등록과 등록에 따른 권리를 위해 최소득표율 1.5%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셋째, 국고의

재정지원으로서 전체국고보조금의 30%는 각 당에 균등하게 분배되고, 나머지 70%는 직전 연방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분배된다. 무엇보다도 1996년 선거제도 개혁은 1994년의 전반적인 멕시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TLC) 개시일이며 선거계절인 1994년 새벽벽두에 치아빠스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했다. 치아빠스에서 농민들의 무장봉기는 멕시코 사회에서 갈등의 폭과 깊이를 볼 수 있게 했다. 치아빠스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오랜 경제적·물리적 준비와 멕시코 사회의 구조적 갈등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무장봉기 시점의 선택도 멕시코의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치아빠스 사건은 즉시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2003년 현재 치아빠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의 저항도전략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1994년 3월23일 멕시코 북서부인 로마스 따우리나스(Lomas Taurinas)에서, 1993년 11월27일 PRI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꼴로시오가 암살되었다. 꼴로시오의 암살은 멕시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서 전통적인 게임규칙의 단절을 의미한다. 1928년 대통령에 재선된 오브레곤 암살이후에 멕시코에서 어떠한 대통령 또는 PRI소속 대통령 후보자를 암살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대통령 재선금지 조항도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는 정치공동체의 노력이었다. 이로 인해, 살리나스정권 ‘동안’ 유입된 외국투자의 40%가 일시에 빠져나갔다. 셋째, PRI 사무총장인 루이스 마시우(José Francisco Luis Massieu)가 멕시코시(D.F)에서 1994년 9월28일에 암살되었다. 살리나스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이며 전 게레로(Guerrero) 주지사였던 루이스 마시우는 PRI소속 상·하원 의원들, 정당지도부, 야당 등 정치공동체와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래에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으나 암살되었다. 이것은 여당인 PRI가 권력공간에서 표현되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협상의 방식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살리나스가 대통령직을 무사히 세디요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양한 20일쯤 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error de diciembre”). 멕시코 금융위기 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디요 대통



령은 정치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시행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번의 선거제도 개혁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선거제도는 점진적이고 완만했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선거경쟁이 증가되었다. 특히, 1997·2000년 선거에서 정당들의 높은 경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PRD가 기존의 정당체제에서 출현할 수 있었고, PRD의 출현으로 PAN의 경쟁력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멕시코 정당체제에 변화를 초래했다.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엘리트에 의한 통치안정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유화의 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제도자체의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멕시코가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 IV. 하원 선거결과 분석

본장에서는 선거분석을 위하여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불비례성과 정당수의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먼저 선거구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1선거구 1인선출의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1선거구 2인선출 중선거구제 등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하원 총의석수 변화를 중심으로 불비례성과 정당수를 살펴보려한다. 두 번째는 다수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제(전국구)에서 불비례성과 정당수를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실제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혼합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 1.

## 1) 지역구 총의석수와 불비례성

| < 1>       | (LSq) |
|------------|-------|
| 1964-1976년 | 3.6   |
| 1979-2000년 | 4.8   |

\* 전국구(비례대표제) 제도가 불비례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위 값은 지역구(다수득표제) 의석율을 기준으로 한다.

\*\* 멕시코는 1선거구1인의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1선거구2인 중선거구제 등 1선거구당 의석수와 불비례성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총의석수 변화를 기준으로 불비례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1964-1976년(총지역구 의원수 300석 미만)을 하나의 범주로 하고, 1979-2000년(총지역구 의원수 300석 이상)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려 한다.

<표 1>에서 1964-1976년 동안의 평균적인 불비례지수(LSq) 값은 3.6이고, 1979-2000년 동안의 평균적인 불비례지수 값은 4.8이다. 양 시기를 비교하면 총의원수가 300명 일 때(1979-2000)가 평균 총의원수 192명(1964-1976)일 때 보다 불비례지수 값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 < 2> 1964-1976 | (LSq) |
|----------------|-------|
| 1964           | 3.68  |
| 1967           | 3.91  |
| 1970           | 4.07  |
| 1973           | 4.61  |
| 1976           | 1.91  |

1964-1976년 동안 계속해서 불비레지수가 상승하다가 1976년 불비레지수가 1.91로 매우 낮아졌다. 여당인 PRI가 1964년 86%를 획득해서 전체 지역구인 178석 모두를 차지했다. 1967년에도 PRI는 83%를 획득해서 전체지역구 177석에서 17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2석은 야당이 각각 1석씩 획득했다. 1970년에 PRI는 83%로 전체지역구 178석 모두를 차지했다. 1973년에는 77%로 전체지역구 194석에서 192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PAN이 나머지 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1976년에 PRI는 85% 획득으로 예전과 비슷한 비율을 획득했으나, 전체지역구 237석에서 194석 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나머지 43석은 야당에게 10석 정도씩 분포된다. 따라서 불비레지수가 1.91로 급격히 떨어졌다.

## &lt; 3&gt; 1979-2000

(LSq)

|      |      |
|------|------|
|      |      |
| 1979 | 4.06 |
| 1982 | 4.85 |
| 1985 | 4.61 |
| 1988 | 5.06 |
| 1991 | 5.37 |
| 1994 | 6.11 |
| 1997 | 4.55 |
| 2000 | 4.08 |

전체지역구가 237석에서 300석으로 확대된 1979년 선거에서 PRI는 74% 획득으로 전체지역구 300석에서 291석을 획득했다. 1982년에는 69%로 전체지역구 300석에서 298석을, 1985년에는 68%로 289석을, 1988년에 51%로 233석을 획득했고 야당인 PAN이 38석, FDN가

29석을 획득했다. 1991년 61%로 290석을 나머지 10석은 PAN이 차지했다. 1994년 50%로 274석을, 1997년 23%로 239석을, 2000년 PRI는 36%로 147석, PAN은 38%로 137석, PRD는 18%로 12석을 차지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비레지수는 1979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 증가는 불비레성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총의원수의 증가가 상당부분 PRI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총의석수와 정당의 수

< 4> ( )

|           |      |     |
|-----------|------|-----|
|           |      |     |
| 1964-1976 | 7    | 1.4 |
| 1979-2000 | 21.4 | 2.7 |

<표 4>는 총의석수 변화에 따라 구분한 두 시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질적인 정당의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와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1964-1976년 평균적인 정당의 수는 1.4이고, 1979-2000년 평균적인 정당의 수는 2.7이다. 따라서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석수 변화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서 가장 적은 선거정당의 수는 1.3이고, 가장 많은 선거정당의 수는 1.6이다. 두 번째 시기에서 가장 적은 선거정당의 수는 1.8이고 가장 많은 선거정당의 수는 4이다. 위 <표 4>는 선거정당의 수를(득표율기준) 기준으로 한 비교이며, 선거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석율을 기준으로 한 의회정당의 수를 보아야 한다. 즉 심리적 효과는 선거정당의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기계적 효과는 의회정당의 수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사표방지 심리에 의하여 군소정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득표한 정당의 수(선거정당)는 줄어들지만 제도 자체의 효과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의회내 정당수(의회정당)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5> ( )

|           |       |     |
|-----------|-------|-----|
|           |       |     |
| 1964-1976 | 5.61  | 1.1 |
| 1979-2000 | 12.95 | 1.6 |

첫 번째 시기의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1.1이고, 두 번째 시기의 평균적인 의회 정당의 수는 1.6으로 총의석수가 증가함으로써 정당의 수가 0.5 증가함으로써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가 약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두 번째 시기의 의회정당의 수의 상승은 멕시코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총의원수가 300명으로 증가된 1979-1994년까지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1.1로서 첫 번째 시기와(1964-1976)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지역구(다수대표제)에서 총의석의 증가는 실질적인 의회정당의 수에 영향을 약간 미쳤으나, 그러한 효과는 구체적인 사회의 상황에 따라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총의석수 증가와 상관없이 1964-1994년까지 강력한 1당체제였고, 1997년 이후(1997년 3.7, 2000년 2.2) 평균 2.95로써 다당체제라 할 수 있다.

< 6>

|           |     |     |     |
|-----------|-----|-----|-----|
|           |     |     |     |
| 1964-1976 | 1.4 | 1.1 | 0.3 |
| 1979-2000 | 2.7 | 1.6 | 1.1 |

<표 6>을 보면, 지역구(다수득표제) 총의석수 증가는 선거정당수(득표율기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의회정당수(의석율기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다수득표제에 의한 총의석수 증가는 심리적 효과(선거정당수)는 있었으나, 기계적 효과(의회정당수)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총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회정당수의 변화는 기계적 효과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멕시코사회의 제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2.

멕시코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를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의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이론의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유추해 보자. 우선 멕시코의 선거결과가 “다수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양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듀베르제 제1가설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자. 레이(D. Rae)에 의하면 양당체제란 득표율에 입각할 경우 제1정당의 득표율이 0.70이하이면서 ( $P_v < 0.70$ ), 양대정당의 득표율의 합이 0.90 이상이어야 한다( $W_v > 0.90$ ). 의석율에 입각할 경우는  $P_s < 0.70$ ,  $W_s > 0.90$  이어야 한다(D. Rae, 1967: 48-58).

< 7>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득표율 | 97.9 | 95.8 | 97.6 | 93.9 | 94.1 | 85.6 | 86.8 | 84.4 | 80.2 | 79.1 | 76.0 | 68.8 | 75.1 |
| 의석율 | 100  | 99.4 | 100  | 99.9 | 90.3 | 98.3 | 99.7 | 99.3 | 90.3 | 99.1 | 97.9 | 65.5 | 94.0 |

득표율과 의석율 모두에 입각해서 볼 때, 양당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2000년 선거밖에 없다. 2000년 선거는 PAN이 38.24%로 지역구 의석의 49%인 147석을, PRI는 36.89% 득표로 지역구 의석의 45%인 137석을 차지하였다. 1964-2000년 전 시기 동안 득표율 평균은 85.8%이고 가장 높을 때는 1964년에 97.9%이며, 가장 낮은 때는

1997년으로서 68.8%이다. 또한 전 기간 동안에 의석율 평균은 94.9%이고, 가장 높은 때는 1964년, 1970년에 100%이며, 가장 낮은 때는 1997년 65.5%이다. 득표율 기준으로 멕시코 정당체제는 1964-1994년 동안 1개의 강력한 패권정당과 그밖의 군소정당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2000년 동안은 다당체제라 할 수 있다.

< 8 >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선거정당 | 1.3  | 1.4  | 1.4  | 1.6  | 1.3  | 1.8  | 2.0  | 2.0  | 2.7  | 2.5  | 3.0  | 4.0  | 3.4  |
| 의회정당 | 1.0  | 1.0  | 1.0  | 1.0  | 1.5  | 1.0  | 1.0  | 1.0  | 1.6  | 1.0  | 1.2  | 3.7  | 2.2  |

<그림 8>에서 의회정당수(의석율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1964-2000년 평균은 1.4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964-1994년까지 평균 1.1로써 1개의 패권정당이 존재하고, 1997-2000년 평균은 2.95로써 3당 정도의 다당제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선거정당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64-2000년 동안 전체 평균은 2.2이고, 1979-2000년 동안 전체 평균은 2.7로써 3당 정도의 다당제 성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FDN의 출현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선거정당수 평균은 3.1로써 다당체제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다수대표제는 선거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다당제이고, 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94년까지는 1개의 패권정당체제였고, 1997년부터 다당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 3.

이상에서 비교한 선거결과는 모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다수대표제와 정당체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구제도(비례대표제)의 변수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 1) 전국구 제도와 불비례성

&lt; 9&gt; (LSq)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전국구 | 9.29 | 9.13 | 9.12 | 8.88 | 9.22 | 8.21 | 8.63 | 8.25 | 6.27 | 6.74 | 6.22 | 1.75 | 0.36 |
| 지역구 | 3.68 | 3.91 | 4.07 | 4.61 | 1.91 | 4.06 | 4.85 | 4.61 | 5.06 | 5.37 | 6.11 | 4.55 | 4.08 |

멕시코는 1964-1976년 동안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제도를 운용하다가 1979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1976년까지 ‘정당의원’ 시절에는 40명 정도를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분했고, 1979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100석 이상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다. <표 9>에서 전국구 제도와 지역구 제도의 불비례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전국구에서 불비례성은 1964-2000년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1964-1994년 30여년 동안 불비례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불비례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전국구의 불비례성이 지역구의 불비례성 보다 항상 더 높았으나, 1997년부터는 전국구의 불비례성이 지역구의 불비례성 보다 낮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국구 제도가 1997년부터 불비례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그림 10>에서와 같이 정당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총의석수가 증가됨에 따라 불비례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 2) 전국구 제도와 정당수

지역구 정당수(다수대표제의 정당수)를 보면, 1964-1994년까지 평균 1.1로서 1개의 패권적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이다. 그러나 전국구 정당수(비례대표제의 정당수)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4-1976동안 평균 정당수는 2.5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전국구 의석이 100-200석으로 증가하던 시기인 1979-2000년 평균 정당수



는 4.4이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고, 정당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허약한 여러 군소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0> ( ) ( )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전국구 | 2.5  | 2.5  | 2.5  | 2.3  | 2.8  | 7.1  | 3.3  | 7.1  | 2.5  | 4.7  | 2.8  | 4.1  | 3.3  |
| 지역구 | 1.0  | 1.0  | 1.0  | 1.0  | 1.5  | 1.0  | 1.0  | 1.0  | 1.6  | 1.0  | 1.2  | 3.7  | 2.2  |

\* 정당수는 의석을 기준의 정당수(의회정당수)

4. ( + )

1) 혼합형과 불비례성

멕시코의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이다. 1964-1976년까지는 다수대표제 177-237석, ‘정당의원’ 32-41석으로 전체의석 210-277석이었다. 1979년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높힘으로서 400-500석으로 증가했다. 1964-1976년 동안 총의석수가 210-277석일때 평균 불비례성은 2.1이고, 1979-2000년 동안 총의석수가 400-500석일때 평균 불비례성은 2.4로서 총의석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비례성도 증가했다.

< 11> (LSq)

|           |     |
|-----------|-----|
|           |     |
| 1964-1976 | 2.1 |
| 1979-2000 | 2.4 |

## 2) 혼합형과 정당수

멕시코의 혼합형제도와 의회정당수를 보면 1964-1976년 동안 의회 정당수는 1.4에서 1979-2000년 동안 2.3으로 증가했다.

< 12>

|           |     |
|-----------|-----|
|           |     |
| 1964-1976 | 1.4 |
| 1979-2000 | 2.3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형을 불비례성과 의회정당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13>에서 다수대표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4.2이고, 비례대표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7.4이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취하는 멕시코의 혼합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2.2이다. 선거방식에 따른 불비례성 크기는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 > 혼합제 순서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혼합방식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3>

(LSq)

|           |     |     |     |
|-----------|-----|-----|-----|
|           |     |     |     |
| 1964-1976 | 3.6 | 9.1 | 2.1 |
| 1979-2000 | 4.8 | 5.7 | 2.4 |
| 전체평균      | 4.2 | 7.4 | 2.2 |

<표 14>에서 최근 20년(1979-2000) 동안 선거방식에 의한 의회정당수를 보면, 다수대표제는 1.6이고, 비례대표제는 4.4이며, 멕시코형 혼합제에서는 2.3이다. 1979-2000년 동안 멕시코 정당체제는 의회정

당수 기준으로 1.6~4.4 범위에서 다당제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2000년 선거결과에 따르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정당수는 확실히 다당체제임을 관찰할 수 있다.

&lt; 14 &gt;

|           |     |     |     |
|-----------|-----|-----|-----|
|           |     |     |     |
| 1964-1976 | 1.1 | 2.5 | 1.4 |
| 1979-2000 | 1.6 | 4.4 | 2.3 |
| 전체평균      | 1.4 | 3.7 | 2.0 |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멕시코의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의 증가는 불비례성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총의석수의 증가가 상당부분 PRI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의 증가는 선거정당수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의회정당수에는 그 영향이 미약하다. 의회정당수의 변화는 총의원수 증가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의 제요인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는 선거정당기준으로 다당제이고, 의회정당 기준으로는 1997년부터 다당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제와 불비례성과 관계는 총의석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비례성은 감소했다. 비례대표제와 정당수를 보면, 비례대표제는 정당수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불비례성을 줄이고 패권적 정당체제의 모습을 다당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허약한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선거제도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회

그룹이나 정치집단이 기존의 확립된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관철하는 문제와 다양한 정치집단이 특정한 선거제도의 선택에 합의하는 문제는 정치적 세력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선거제도의 개혁은 사회계급과 정치집단들 사이의 대결과 타협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보통·평등 선거권의 확산, 사회운동의 전개, 노동자 정당의 대두 등 전통적 정당의 재편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황희곤, 1996: 138-139).

한 나라의 선거제도가 그 나라의 정당정치에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정당관계가 선거제도의 형태를 결정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와의 상관관계는 곧 선거제도와 정치의 안정과 불안정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양당제란 그 사회 지도층이 만들어낸 이분법에 따라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 내는 것으로 이른바 계도민주정치(guided democracy)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다당제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결해 내는 대중정치(Mass politics)라고 할 수 있다. 양당제가 보편적 의사를 중시한다면, 다당제는 개별적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표출을 의회내로 유도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정치체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다(Burke, 1961: 151; MacIver, 1964: 396).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의도를 도외시한 채 여당의 승부조작책의 중요한 도구로 전략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는 득표율(선거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88년을 기점으로 다당제의 특징을 보이고, 의석율(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64-1994년 동안 1개의 패권정당과 미약한 군소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이나, 1997년부터 실질적인 다당제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듀베르제의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가설은 멕시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가 양당제 경향을 갖지 않는 것은 독특

한 멕시코의 역사, 정치문화, 정치구조와 관련이 있다. 즉 1994년까지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와 자원을 독점했던 PRI의 존재와 강력한 대통령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의석율(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64-1976년 동안 평균 정당수는 2.5이고, 1979-2000년 동안 평균 정당수는 4.4이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듀베르제의 가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효과에 따라 선거정당수가 의회정당수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N_v > N_s$ ). 그러나 멕시코의 비례대표제에서는 의회정당수가 선거정당수보다 많다( $N_v < N_s$ ).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이 과다대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멕시코 정당체제에서 PRI의 패권적 정당의 특징을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군소정당을 의회정당으로 흡수하여, 다당제로 보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7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인 PRI가 제1당이 되었고, 여당인 PAN은 제2당이 되었다. PRD는 20% 미만으로 제3당에 위치한다. 2006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었다. 2006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멕시코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거로 세계의 주목이 예상된다. 여기서 멕시코 민주주의라함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가 71년 동안 유지되었던 멕시코 권력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투표를 통해 대통령, 상원, 하원, 주지사 등에 야당소속 경쟁자들을 당선시킴으로서 권력의 최고 정점 수준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졌고, 또한 멕시코 권력구조에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약 7명 정도가 대통령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2003년 하원선거 결과를 보면, PRI 소속 대통령후보자의 당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거돌풍이 발생한다면, 현재 멕시코시 시장인 PRD 소속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의 당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멕시코인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Abstract

El presente estudio aborda las dimensiones y procesos por los que México ha tenido que pasar para llegar a ganar lo que todavía es hoy un espacio democrático titubeante, un espacio civil emergente, pero no plenamente configurado. Se ha elegido México porque en él se da una duplicidad muy relevante de los factores de cambio. Por un lado, hay una quiebra de la cohesión de la elite política que conduce a una liberalización política promovida por el propio régimen como medio de aliviar las tensiones internas que amenazan con destruirlo súbitamente: por otro, a raíz de los acontecimientos de 1968 se produce el nacimiento, titubeante al principio, arrollador tras los seísmos de 1985, de una sociedad civil dinámica y combativa que está llevando al país hacia una democracia real.

Este estudio analizará la relatividad entre el sistema electoral y el sistema del partido político en México con el fin de probar las hipótesis del Duverger M. sobre la representación de mayoría relativa = bipartidismo y la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 multipartidismo. Por otro lado centrará su atención en las sucesivas reformas electorales que han permitido encauzar la democracia en México.

Key Words: Mexican Democratization, Political Change, Electoral Reform, Political Party System, Democracy / 멕시코, 민주화, 정치변동, 선거개혁, 정치체제, 민주주의.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lt; 1 &gt;

|      | Nv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1.3 | 1.00 | 0.25 | 0.00 | 13.63 | 3.68 | 178 |
| 1967 | 1.4 | 1.04 | 0.31 | 0.04 | 15.36 | 3.91 | 177 |
| 1970 | 1.4 | 1.00 | 0.31 | 0.00 | 16.61 | 4.07 | 178 |
| 1973 | 1.6 | 1.04 | 0.39 | 0.04 | 21.37 | 4.61 | 194 |
| 1976 | 1.3 | 1.53 | 0.28 | 0.35 | 3.65  | 1.91 | 237 |
| 1979 | 1.8 | 1.06 | 0.45 | 0.06 | 16.52 | 4.06 | 300 |
| 1982 | 2.0 | 1.02 | 0.51 | 0.02 | 23.61 | 4.85 | 300 |
| 1985 | 2.0 | 1.08 | 0.52 | 0.08 | 21.30 | 4.61 | 300 |
| 1988 | 2.7 | 1.60 | 0.64 | 0.40 | 25.65 | 5.06 | 300 |
| 1991 | 2.5 | 1.08 | 0.61 | 0.08 | 28.90 | 5.37 | 300 |
| 1994 | 3.0 | 1.21 | 0.67 | 0.18 | 37.43 | 6.11 | 300 |
| 1997 | 4.0 | 3.70 | 0.75 | 0.73 | 20.79 | 4.55 | 300 |
| 2000 | 3.4 | 2.20 | 0.71 | 0.56 | 16.76 | 4.08 | 300 |

\* Nv: 선거정당수, Ns: 의회정당수, Fv: 득표율 기준 파편화율, Fs: 의석율 기준 파편화율, D: 불비례성, LSq: 불비례성

&lt; 2 &gt;

|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2.5 | 0.26 | 0.60 | 86.36 | 9.29 | 32  |
| 1967 | 2.5 | 0.31 | 0.61 | 83.50 | 9.13 | 34  |
| 1970 | 2.5 | 0.31 | 0.60 | 83.38 | 9.12 | 35  |
| 1973 | 2.3 | 0.39 | 0.58 | 78.97 | 8.88 | 36  |
| 1976 | 2.8 | 0.28 | 0.65 | 85.16 | 9.22 | 41  |
| 1979 | 7.1 | 0.56 | 0.86 | 67.50 | 8.21 | 136 |
| 1982 | 3.3 | 0.45 | 0.70 | 74.62 | 8.63 | 100 |
| 1985 | 7.1 | 0.52 | 0.86 | 68.14 | 8.25 | 100 |
| 1988 | 2.5 | 0.64 | 0.60 | 39.42 | 6.27 | 200 |
| 1991 | 4.7 | 0.61 | 0.79 | 45.59 | 6.74 | 200 |
| 1994 | 2.8 | 0.67 | 0.65 | 38.89 | 6.22 | 200 |
| 1997 | 4.1 | 0.75 | 0.76 | 3.08  | 1.75 | 200 |
| 2000 | 3.3 | 0.71 | 0.70 | 0.36  | 0.60 | 200 |



&lt; 3 &gt;

|      | Nv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1.3 | 1.4 | 0.25 | 0.30 | 4.57 | 2.13 | 210 |
| 1967 | 1.4 | 1.4 | 0.31 | 0.33 | 3.40 | 1.84 | 211 |
| 1970 | 1.4 | 1.4 | 0.31 | 0.32 | 4.84 | 2.20 | 213 |
| 1973 | 1.6 | 1.5 | 0.39 | 0.32 | 6.41 | 2.53 | 231 |
| 1976 | 1.3 | 1.5 | 0.28 | 0.35 | 3.65 | 1.91 | 277 |
| 1979 | 1.8 | 2.2 | 0.45 | 0.56 | 8.06 | 2.82 | 431 |
| 1982 | 2.0 | 1.8 | 0.51 | 0.45 | 7.51 | 2.74 | 400 |
| 1985 | 2.0 | 1.9 | 0.52 | 0.48 | 6.52 | 2.55 | 400 |
| 1988 | 2.7 | 2.6 | 0.64 | 0.62 | 2.47 | 1.57 | 500 |
| 1991 | 2.5 | 2.3 | 0.61 | 0.58 | 2.98 | 1.72 | 500 |
| 1994 | 3.0 | 2.3 | 0.67 | 0.58 | 8.29 | 2.87 | 500 |
| 1997 | 4.0 | 3.0 | 0.75 | 0.67 | 5.75 | 2.39 | 500 |
| 2000 | 3.4 | 2.8 | 0.71 | 0.65 | 7.94 | 2.81 | 500 |

- 김광수(2002), 선거와 정당, 박영사.
- 김달관(2003), 「세디요정부를 통한멕시코 민주화연구: 1994-2000」,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지역연구, Vol. 12, No. 2, pp. 67-97.
- 박병수(2002), 「멕시코 정권교체의 정치적 함의」,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1, pp. 251-279.
- 송기도(2000), 「스페인 선거체도의 특징」, in 박찬욱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pp. 159-180.
- 안순철(2000), 선거체제비교, 법문사.
- 유숙란(1991),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성형(1998), IMF 시대의 멕시코, 서울대출판부.
- 조중빈(1999), 한국의 선거III, 푸른길.
- 황희곤(1996),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Almond, Gabriel A.(1974),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Boston: Little, Brown & Co.
- Blondel, Jean(1968),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Govern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Bogdanor, Vernon & David Butler(1983), *Democracies and E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ke, Edmundo(1961), "Thoughts on the Cause of Present Discontent", *Work*, Vol. 1, London: Henry G. Bohn, pp. 142-159
- Cansino, César(1998), *Después del PRI: las elecciones de 1997 y los escenarios de la transición en México*, México: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 Cárdenas, Enrique(1996), *La política económica en México, 1950-1994*.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El Colegio de México,
- Comisión Federal Electoral(1988), México.

- Duverger, M.(1951), *Political Part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Harrop, M. & W. L. Miller(1987), *Elections and Voter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ew York: Meredith Press.
- Garrido, Luis Javier(1993), *La ruptura*, México: Editorial Grijalbo.
- Gómez Tagle, Silvia(1997), *La transición inconclusa: treinta años de elecciones en Méxic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González Sandoval, Juan Pablo(1996), *El año del vacío*, México: Editorial Océano.
- Grofman, B. & A. Lijphart(1986),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thon Press, Inc.
- Instituto Federal Electoral(1997), *Estadística de las elecciones federales y estadísticas de las elecciones locales en el Distrito Federal de 1988-1997*, México.
- Lapalombara, Joseph & Myron Weiner(1972),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ar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1995), *Sistemas electorales y sistema de partidos*, Madrid: 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 López Portillo, José(1982), *VI Informe de Gobierno*, México, 1 de septiembre.
- MacIver, Robert M.(1964), *The Modern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nald, Ronald H.(1971), *Party and Election in Latin America*, Chicago: Markcham Publish Company.
- Meyer, Lorenzo y José Reyna(1989), *Los sistema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Ogaz Pierce, José Abel(1996), *Deuda externa pública mexicana y el nuevo orden económico*, México: 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 Orozco Gómez, Javier(1993), *El derecho electoral mexicano*, México:

Editorial Porrúa.

- Ortiz Pinchetti, José Agustín(1997), *Reflexiones privadas, testimonios públicos*, México: Editorial Océano.
- Pérez German, Castillo et al.(1994), *La voz de los votos: un análisis crítico de las elecciones de 1994*, México: Miguel Angel Porrúa.
- Rae, D.(1967),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mírez Fuentes, Carlos(1995), *La transición democrática y sus prerrequisitos: la reforma institucional*, México: UNAM.
- Rodríguez, Octavio(1991), *La reforma política y los partidos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Salazar Ham, Sonia(1996), *Transición a la democracia en el Distrito Federal: reforma política 1987-1995*, México: UNAM.
- Sartori, Giovanni(1976), *Parties and Party System: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1988), *Deuda externa pública mexican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ergio, Aguayo Quesada y John Bailey(1997), *Las seguridades de México y Estados Unidos en un momento de transición*,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Taagepera, R. & M. S. Shugart(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illamil, Jenaro(1998), *Los desafíos de la transición: escenarios del cambio político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RAYA EN EL AGUA.
- Villanueva, Ernesto(1994), *Autonomía electoral en Iberoamérica, una visión derecho comparado*, México: Triana Editores.
- Zárate, Alfonso(1995), *Los usos del poder*, México: RAYA EN EL AGUA.